

의료환경 - 그 아름다운 당연성

양내원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서론

본 고(稿)는 기능주의를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효용성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고 해링(Hugo Häring)이나 한스 샤로운(Hans Scharoun), 루이스 칸(Louis Kahn), 귄터 베니쉬(Günter Behnisch) 등의 근·현대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의료시설 설계에 새롭게 적용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 기능주의 이론의 고찰

건축 이론가인 Lampugnani는 근대 건축의 이론 중에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이 주장한 “Form follows function”의 의미가 종종 잘못 이해되어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리반이 이 말 뜻에서 의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의 모든 물체는 외형, 즉 형태를 갖고 있다. 그 형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또 다른 존재와 상호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에서는 이렇게 생명과 형태는 서로 일치하며 각각 나누어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따라서 생명은 그 것의 출현으로부터 이미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이와 같이 형태는 항상 기능을 따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건축물의 용도가 외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설리반의 진정한 의도는 건축 형태가 과제(내부 생명)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¹⁾

독일의 건축가 휴고 해링은 건축형태를 외부질서나 기하학 등의 법칙으로 강요해서는 안되고, 철저하게 내적 요구로부터 끌어내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는 사물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 본성에서 고유한 형태가 발전되어 지기를 촉구한다”²⁾ 또는 “형태란 강요(imposed)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본성(nature of task) 안에서 발견(discovered)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 그는 독일의 건축가 한스 샤로운이 설계한 베를린 필하모니 건물을 그의 이론을 가장 잘 표현한 건축물로 예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필하모니 건물은 ‘음악당은 왜 존재해야 하는 가’라는 과제에 대한 명료한 답을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하모니 건

물은 인간이 음악을 듣는 가장 자연스러운 내부 공간을 추구하고 있으며 건축형태(외형)가 이를 위한 결과로 결정된 것으로 유명하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경우 형태 그 자체가 건축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서, 즉 연주자와 듣는 자를 음악으로 연결해 주는 신체기관의 연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모든 내부공간과 외부형태는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비록 필하모니 건물은 외부 형태에 직각의 사용을 회피함으로써 표현주의를 연상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형태가 발전되어진 사례이다.

Adolf Behne는 1920년대에 이미 이러한 종류의 건축물(해링이나 샤로운에 의한 건축)을 바로 ‘기능주의(functionalism)’ 건축이라고 정의하였다.⁴⁾ 그의 분류에 따르면 기능주의란 합리주의 건축과 대별되며 합리주의 건축이 기하학적 형태의 통일성을 추구한다면 기능주의란 내면적인 논리(기능)에 충실한 경향을 갖는다.

이들 기능주의 건축가들은 건축가의 개성이나 외형적인 형태 질서를 건축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갖는 개별적인 성격(사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 방식이나 본성)을 발견하고 이를 억압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설계 행위를 형태를 부여하는 것(form giving)이 아니라, 형태를 찾아 나가는 과정(form finding)으로 해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물이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형태를 추구하였다. 여기서 무생물인 사물 자체가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형태를 언급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링(Häring)과 같은 건축가는 설계과정을 가능한 한 열린 마음을 갖고 이를 발견해 가는 여행과 같은 과정으로 간주하였다.⁵⁾

루이스 칸 역시 사물의 이러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 건축가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건축가는 이러한 사물의 존재의지(existence-will)나 염원을 각 시대에 밝혀 내야할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또한 사물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What it wants to be)’를 먼저 묻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있어서 ‘로비(Lobby)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하여 루이스 칸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해석하였다.⁶⁾

독일의 건축가 베니쉬(Guenter Behnisch)는 건축가가 먼저 형태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것은 품위 없는 짓이며 설계의 첫 단계에는 먼저 주어진 과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또한 사물 스스로가 되고 싶은 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축가가 배려할 것을 강조하였다(Die Dinge werden lassen, wie sie wollen!).⁷⁾

이러한 존재론적인 기능주의 이론은 기독교의 창조 원리와도 매우 일치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①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②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①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②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존재의 성격을 설정하고(① 참조), 그 다음 외형을 만드는(② 참조) 순차적인 과정을 보여 준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은 하나님의 육체적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품)를 뜻한다는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외모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⁸⁾

즉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의 원리는 외면적인 형태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질, 즉 인간 존재(또는 창조 목적)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주는 창조의 과정에서 먼저 존재를 정의하고 그 존재에 따라 형태를 발전시켰다. 어쩌면 그의 창조능력은 창조물의 외부 형태보다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신비에 쌓인) 생물들의 다양한 존재성을 창조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링 역시 자연으로부터 그의 생각을 유추해 내었는데 이 유추는 자연 형태로부터의 직접적인 유추가 아니라 이와 같은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원리로부터의 유추이다. 자연에서 보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속성(내면)과 형태(외면)가 서로 연관관계를 갖는다.

Jürgen Pahl은 이러한 건축이론의 특징으로, 형태를 형식이나 법칙(Gesetz-mäßigkeit)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별적인 것을 존중하되 건축가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Dinge)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론이 절충주의적인 형태를 없앨 뿐 만 아니라 이용 형태(Gebrauchsform)와 예술 형태(Kunstform)가 서로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평가하였다. Pahl은 이러한 이론을 일반적인 ‘기능주의’와 구별하여 ‘생물학적 형태의 건축’ (Biomorphe Architektur)이라고 분류하였다.⁹⁾

한편 하인리히 클롯쯔(Heinrich Klotz)는 이러한 일련의 사조를 ‘유기적 기능주의 (organic functionalism)’로 명명하였고 대표적인 건축가로 휴고 해링을 지목하였다.¹⁰⁾ 근대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물질에서 정신을 배제함으로써 물질은 그 자체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일종의 기계 즉 수학적, 물리적 대상으로 여겨지게 됨으로서, 건축도 인간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유기체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물에 내재된 성질이나 본성에 의한 힘에 의하여 ‘무엇이냐는 것’과 ‘그것이 걸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은 종종 유기적 건축(organhaftes Bauen 또는 organische Architektur)이라고 명명된다.¹¹⁾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소위 건축물의 존재 목적을 묻는 건축이론을 '존재론적 기능주의'로 정의하였다. 비록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는 있으나 해링이나 샤로운에 의한 유기적인 건축형태와 칸(Kahn)의 기하학적 건축형태, 베니쉬의 다소 혼돈스러운 건축형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형태의 공통성을 찾기가 힘든 반면, 사물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묻는 다는 이론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존재론적인 기능주의 이론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성(목적)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형태

존재론적 기능주의의 형태발견의 과정은 건축가가 먼저 건축물의 본성이나 존재 의지를 묻고 이에 알맞는(appropriate) 형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론적인 기능주의는 외부 형태를 순수한 형태논리인 기하학적 질서로 결정하는 합리주의 건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링은 합리주의 건축이 기계론적인 메카니즘에 의한 획일적인 유니폼(Uniform)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또한 건축물을 프로그램이나 경제성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능주의'와도 크게 차별된다. 존재성으로부터 발전된 개념이 그 존재성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존재론적 기능주의 이론의 가장 핵심이다. 따라서 그 형태는 마치 자연과 같이 '꾸밈이 없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존재론적 기능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당연성(beautiful naturalness)'이다.

2) 부분의 존중

존재론적인 기능주의에서는 부분(개체)을 매우 존중시한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개체의 존재적인 의미도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체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은 부분이 갖는 조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내면적인 성질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샤로운은 건축에 있어서 부분이란 마치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이 존중되는 것과 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¹²⁾,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보면 부분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분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분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이 개체가 동등하게 존중됨에 따라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분절되며 유기적으로 종합되어 표현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은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으며 또한 항상 전체적인 개념과 연결된다.

3) 상대적 표현 미학의 강조

존재론적 기능주의에서는 외부 질서나 형태의 질서가 내면적인 속성을 지배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거부하므로, 절대미학 보다는 상대적인 표현성에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합리주의 건축을 절대적인 형태미학을 강조한 플라톤적인 개념이라고 분류한다면, 존재론적인 기능주의는 사물의 존재 원인을 묻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으로 분류된다. 표현주의에서는 주로 형태 자체가 목적이 되

나 존재론적 기능주의에서는 형태 자체가 내면적인 존재이유에서 발전된 합리적인 결과물이므로 비록 표현적인 형태를 갖는다고 해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 건축과 인간 삶의 관계회복

샤로우는 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조립화를 추구하였던 시대에 건축이 재료나 기술 등에 의한 구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해석(Deutung des Lebens)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접근하였다. 그 시기의 근대건축은 또한 순수한 자율적 건축을 추구함에 따라 공장, 미술관, 학교 등이 그 내부 기능과 관계없이 모두 균등한 형태의 기하학으로 대치되고 있었다. 즉 인간의 삶이 건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존재론적인 기능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축과 인간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연구자는 '기능'이란 단어를 단순히 공간 프로그램이나 기능 프로그램 식의 계량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적 존재 이유 (existence-will)'로 이해한다. 또한 건축가는 각 시대에 이것을 밝혀내야 할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이 형태를 제안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고 다양한 건축이론들 가운데서 건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을 소외시키지 않는 존재론적인 기능주의 이론은 실내 공간 설계에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존재론적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해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주(註)

- 1) Vittorio M. Lampugnani, Architekturund Staedtebau des 20. Jahrhunderts, Verlag Gerd Hatje, 1980, p18
- 2) Vittorio M. Lampugnani, 같은 책, p.76
- 3) Peter Blundell Jones, Günter Behnisch, Birkhäuser, 2000, p.16
- 4) Adolf Behne, Der moderne Zweckbau, München, Wien, Berlin, 1926, p.62
- 5) 이선구, 현대 건축의 기수들, 샤로운과 유기적 건축, 현대미술관회, 1990, p.62
- 6) Jürgen Joedicke, Architektur im Umbruch, Karl Krämer Stuttgart, 1980, pp.120-122
- 7) Günter Behnisch 외, Hugo Häring in seiner Zeit/ Bauen in Unserer Zeit, Symposium und Ausstellung Biberach, May, 1982, pp.39-44
- 8)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외모)대로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다. 아가페 큰글성경 편찬 위원회, 오픈 II 주석성경, 1996, p2
- 9) Jürgen Phal, Architekturtheori des 20. Jahrhunderts, 1999, p.129
- 10) Heinrich Klotz, 양동양역,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2, p.36
- 11)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IVP, 2002, p.272
- 12) Peter B. Jones, 같은 책, p.17